

# “기업금융 ‘명가’ 재건... 2027년까지 기업대출 30조 순증”

## 우리은행 전략 발표회

대기업·중소기업 부문 집중  
대출자산 기업 비중 60%로  
건전성 우려 심사인력 확충  
300개 중견기업에 4조 지원

우리은행이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기업대출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은행은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과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을 비롯해 우리은행 내 대기업·중소기업 부문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은 “오는 2027년까지 대출을 총 30조 원 이상 늘리겠다”며 “대출자산의 기업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대기업+중소



장광의 우리은행 브랜드홍보그룹장(왼쪽부터),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이 7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개최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기업)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5조 7000억원, 가계대출은 132조 7000억원이다.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은 50.5대 49.5로 집계됐다.

강 부문장은 “기업금융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에 강한 역사적 전통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활력 제고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신성장 산업 등 기업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상반기 기준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160조815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기업대출 잔액(167조3000억원)을 기록한 KB국민은행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해 말 대비 성장률로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성장률은 1.9%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으면서 저조한 성

장률을 보였다.

강신국 부문장은 “현재 대기업 대출의 경우 연 평균 30% 성장, 중소기업 대출은 연 평균 10%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건전성 리스크 우려도 있는 만큼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심사에 적극 나서는 등 이와 관련된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기업은 2028년까지 300개 기업에 총 4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합동 사업인 ‘라이징 리더 300’에 19개사 2000억원 지원을 완료했고, 방산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에 매년 4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권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비이자 전략 영업을 추진하고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와 함께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한다. 이종산업 간 제휴 모델을 활용해 기업금융의 새

로운 영업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금융 전문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구축한다. 기본급여의 최대 300% 내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이다. 심사는 신성장산업 전담 심사팀을 구축하고 심사 속도와 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은 “기존 은행 체계는 호봉제에 아직 그치는 단계지만 기업 금융에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금융에 강한 사람은 계속 남아있으면서 임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관리 효율성 때문에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는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자본비율 문제 때문에 무조건 크게 늘리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늘리면 문제가 있지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업종, 돈이 흘러가면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여전사, 대손비용 증가로 순이익 22% 뚫

(전년 동기 대비)

156곳 상반기 순이익 1조6171억  
대손충당금 8925억 추가 적립

올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 대손비용이 늘었고, 연체율도 높아지는 등 건전성도 나빠졌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6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의 상반기 중 순이익은 1조6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다. 수익이 늘었지만 대손 비용 등의 증가폭이 더 컸다.

여전사의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236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 증

가했다.

고유업무 자산은 할부금융자산과 리스자산이 각각1조4000억원, 1조 1000억원 늘었다. 대부분 자동차금융 자산이다.

반면 대출채권은 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1조4000억원 늘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78%로 전년 말 대비 0.53%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비율여신비율은 2.09%로 전년 말 대비 0.55%p 상승했다. 상승폭은 1분기 0.35%p, 2분기 0.20%p다.

상반기 중 대손충당금 8925억원을 추가 적립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3%로 전년 말 대비 3.9%p 상승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7.3%로 경영지도비율인 7%를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통화 긴축 지속 여부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부실채권 정리 확대와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채권시장과 여전사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이창용 한은총재 BIS 총회 참석차 9일 스위스 출국



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7일 이 총재가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해 1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과 11일 세계경제회의, 아시아지역회의,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등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또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하나은행-중앙대, 맞춤형 인재양성 맞손

금융 데이터 분석, 은행 실무기초 등  
하나銀 전문인력 참여해 강의 진행

하나은행이 지난 6일 중앙대학교와 함께 금융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산업군에서 데이터·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중앙대학교 내 신설되는 ‘Data & Privacy’ 전공 교과목에 하나은행 디지털·데이터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약 4~6주간 실무 중심의 디지털 금융·데이터 분석·은행 실무 기



이승열 하나은행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박승규 중앙대학교 총장과 금융 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초 등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동연구 등을 위한 원활한 데이터 기술 개발 협의 ▲학술 및 산업현장에서의 최신 정보 공유 ▲상호 교류와 협업 지원을 위한 보유 자원 활용 등에서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전공 라운지 및 별도 공간을 중앙대학교 내에 조성키로 했다.

/구남영 기자



경북 산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농어촌학생 초청 금융캠프

### 보험 브리핑

DB손보, 품질 분임조 대회 금상  
캐롯손보 ‘퍼마일’ 재가입률 91%

메리츠화재가 농어촌초등학생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 ◆ ‘서울초청 금융캠프’ 개최

메리츠화재는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산북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서울초청 금융캠프’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초청 금융캠프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금융 및 문화체험 활동이 어려운 농어촌 초등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수학여행 형태로 운영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참가 학생들은 1일차인 6일에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금융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경북 공방문과 한강유람선 투어 등 서울 시내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DB손해보험의 서비스 시스템이 산업계 품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 ◆ 분임조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DB손해보험은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제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융업계 최초로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도별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273팀, 2500여명의 분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DB손해보험은 서비스 부문과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최고 상인금상을, 사회적가치창출부문에서는 은상을, 사시간접과 R&D부문에서는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5개 부문 수상은 해당 대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다.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 재가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 퍼마일차보험, 재가입률 91.3%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은 지난 8월 기준 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들의 재가입률이 91.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은 2020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 138만 건을 돌파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1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고객이 기존 보험사와의 계약을 연장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재가입률은 서비스 만족도와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는 설명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